

# 한지민, 이렇게 단단한 배우였던가...

과감한 연기 변신...극 완성도 높여  
영평상·런던 亞영화제 여우주연상  
30대 여배우 확고한 입지...기대 커

배우 한지민이 2018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면서 연이어 값진 성과를 얻고 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영화를 통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배우로서도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다졌다. 모두 영화 '미쓰백'을 통해 얻은 성과다.

'미쓰백'(감독 이지원·제작 영화사 배)의 극장 상영이 마무리되면서 한지민의 성과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배우의 과감한 도전이 영화의 흥행은 물론 자신의 앞날까지 밝게 비출 수 있는 사실을 증명했다.



영화 '미쓰백'의 한지민

18일 현재 '미쓰백'의 누적 관객은 72만 명. 여타 상업영화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순제작비 16억원에 불과한 저예산 작품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을 월등히 뛰어넘는 기록이다. 특히 최근 100억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도 손익분기점 도달에 실패한 작품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지민과 '미쓰백'의 성과는 간과할 수 없다.

작품의 탄생은 물론 흥행까지 가능케 한 주역은 단연 한지민이다. 그가 출연을 결정하면서 '미쓰백'은 비로소 제작이 확정됐다. 한지민의 활약에 힘입어 극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의 이미지를 털어내는 그의 도전은 여러 결실로 이어진다.

시작은 여우주연상 수상이다. 한지민은

최근 열린 제3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미쓰백"은 세상에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며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이 순간이 더욱 꿈같다"고 눈물지었다. 앞서 제3회 런던아시아영화제에서도 배우상을 받았고 앞으로 진행될 또 다른 영화상 수상 가능성도 높고 있다.

30대 배우로 자리를 확고히 다진 한지민은 '미쓰백'을 넘어 이제 안방극장으로 향한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가 새로운 무대다. 내년 초 방송을 앞둔 드라마는 같은 시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그리는 판타지 로맨스다. 한지민은 대선배인 김해자 그리고 신예 남주혁과 호흡을 맞춰 시청자 앞에 나선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이정연의 꼬리 물기

팬들 박수 대신 고소라니...  
강성훈 '양치기소년' 추락

그룹 젝스키스의 강성훈이 이제는 팬들에게 피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각종 사건과 논란에 휘말린 스타들은 많았지만 팬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은 강성훈이 처음일 듯하다. 최근 젝스키스의 팬 70여명이 강성훈과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를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하면서 티켓 판매 수익을 기부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팬클럽 후니월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지를 올렸고, 팬들은 티켓 구입비와 후원금액 1억원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사건과 관련해 강성훈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강성훈이 지금까지 금전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사기와 횡령 등 사건에 휘말려왔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나도 피해자"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2013년 사기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기도 했다.

팬들은 더 이상 그에 대해 "후시나"하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팬들은 강성훈이 그동안 방송이나 팬미팅에서 했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의 근거 등을 수집해 언론사에 제보하고 있기까지 하다. 강성훈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예전처럼 다시 팬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nnjoy@donga.com

## #해시태그 컷



서현 태국어...못하는게 뭐니?

소녀시대 멤버 겸 연기자 서현의 유창한 태국어 실력이 눈에 띈다. 최근 주연한 드라마를 끝내고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서현이 태국어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현은 이날 태국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태국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기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글을 올렸다. 태국 팬들 역시 "빨리 만나자" "우리가 더 고맙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포스트 #소녀시대 #서현 #은자서도잘해요

## 솔로 '갯제니'

(God)

한국 여자 솔로, 첫 메이이즌즈 톱10  
뉴욕타임스·빌보드, 신곡 집중 보도  
유튜브 가파른 조회수...5570만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갯제니'로 우뚝 섰다.

최근 솔로로 첫 발을 내디딘 제니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장점을 내세워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엄정화, 이효리, 보아 등을 잇는 새로운 여성 솔로가수 탄생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제니는 첫 번째 솔로곡 '솔로'를 발표한 지 6일째인 18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국내 각종 음원차트와 40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지켰다. 엑소, 트와이스 등 두터운 팬덤을 자랑하는 아이돌 가수들까지 제친 결과여서 제니의 솔로 파위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분위기는 해외에서 더 뜨겁다.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멤버로 이루어진 그룹이 아니라 여성 솔로로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제니가 처음이다. 특히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벌인 경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솔로로 나서며 국내 음원차트와 40개국 아이튠즈 차트를 휩쓸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빌보드 등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쟁에서도 당당히 이겼고,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 톱 10에도 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지 언론의 시선도 마찬가지. 미국 뉴욕타임스는 17일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신곡 등을 소개하면서 제니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제니가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로 노래하고 영어로 랩을 하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또 빌보드는 "제니의 특 쓰는 듯한 멜로디와 감미로움과 폭발적인 보컬"을 평가했고, 영국 메트로도 미국 아이튠즈 톱 10에 오른 제니의 활약을 다뤘다.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만큼 제니의 다채로운 모습이 오롯이 담긴 뮤직비디오의 인기도 남다르다.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건을 가뿐히 넘어서더니 가파른 상승세로 18일 오후 5570만 건을 돌파했다. 한국 여성 솔로가수로는 최단기간 기록이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상승세도 넘어서었다.

제니는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의 방송 취소 등 편성 변경으로 인해 정식으로 자신의 '솔로' 무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향후 그 파위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02558호(2018.06.12) (COM-2018-06-28146)

“나이 들수록  
앞에 걸리기는 쉬운데  
보험 가입은  
힘들어지네요”

“**위암 재발확률**  
**20.5%**  
[서울 백병원 2017]  
대상: 1998~2002 위암 수술환자 1,299명

“**암을 한번  
앓고 나니까  
더 불안해요**”

“**암 발생률 급증**  
**50세 이후**  
[국립암센터, 2015 기준]  
10년간 암 발생률

“**일반인 대비, 고혈압 환자  
전립선암 발병률**  
**1.45배**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종양학회 2017]  
대상: 2006~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환자 10세 이상 남자

“**작은 병이  
큰 병 될까봐  
무서워요**”

## 암보험 걱정!

###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Ⅱ이 답이다 (갱신형)

**슬림인덕션**  
상담원로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18.09.01 ~ 2018.12.31  
\*최소 50만원 상당 상품 구매 시  
\*2018년 12월 31일 00:00:00 기준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 080-608-1010

\*가입 후 90일 이내 보장단, 소액입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소 100만원 (가입 2년 이내 50%)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탁된 금액을 합하여 인정)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기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령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장학자금
----------------------	----------------------------------	---------------------	------------	---------------	-----------------------------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